

고흥분청문화박물관, 군민 유물 기증 문의 쇄도

기증특별전 효과 ‘톡톡’... 지역 문화유산 보존 가치 관심 확산

옛 책·역사자료·생활용품 등 소장품 기증신청 100여점 접수

고흥군 분청문화박물관은 기증특별전이 군민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옛 역사 자료부터 생활용품까지 유물 기증 신청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박물관은 기증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지난 3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층 기획전시실에서 ‘2022~2024년 기증특별전-고흥의 보물, 함께 있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지역민들이 기증한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막 이후 약 4만 명의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면서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기증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시를 관람한 군민들 사이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도 의미 있



는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박물관에는 옛 책, 사진, 생활용품 등 다양한 소장품에 대한 기증 상담과 신청 문의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기증 신청 자료는 약 100점에 이르는

다.

이처럼 군민들이 기증한 자료들은 지역의 생활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산으로, 박물관 전시·교육·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기증자의 뜻과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물관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중요한 운영 가치로 삼고, 기증 증서 수여, 기증자 명예의 전당 등재, 박물관 주요 행사 초청 등 기증자의 공로가 지역사회에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청문화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기증전시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함께 보존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 문화유산 보존에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분청문화박물관은 연중 기증 자료 접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증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흥분청문화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학예연구팀(061-830-567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고흥=천기만 기자

순천시, 송광면 장안마을 버스 중회

일 3회에서 5회로 확대 운영...교통편의 개선

순천시는 보성군과 협의를 거쳐 송광면 장안마을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 장안마을 내부 승강장을 운영하는 보성교통 농어촌 버스를 1일부터 기존 1일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장안마을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버스 운행 횟수가 적고 순천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떨어진 승강장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송광면행정복지센터, 우체국 등 관공서 방문 시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주민들의 이동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반면 보성교통 농어촌버스는 마을 내부에 설치된 승강장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규

노선 신설보다 기존 보성교통 노선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 편의성과 운행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보성군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운행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장안마을을 운행하는 보성교통 농어촌버스 운행 횟수는 기존 1일 3회에서 5회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장안마을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특히 어르신들의 송광면 소재지 및 인근 생활권 이동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운행 확대는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주민 이용 편의를 우선 고려한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구례 마산면 복지기동대

집수리 재능기부 봉사활동

구례군 마산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난달 29일 관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집수리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 사업으로 추진됐으며, 복지기동대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찾아 노후된 벽지를 새롭게 도배하고 오래된 전선을 교체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또한 화장실 바닥의 깨진 타일을 보수하고, 세면대가 없어 불편을 겪던 집을 고려해 세면대를 직접 설치하는 등 생활 속 불편 해소에도 도움을 줬다.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집이 오래돼 고칠 곳이 많아 걱정이 컸는데 새집에 이사 온 것처럼 깨끗해졌다”며 “구슬땀 흘리며 도와주신 마산면 복지기동대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문필자 마산면 복지기동대장은 “생업으로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대원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작은 손길이지만 우리 이웃의 일상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창철 기자

광양, 해비치로 달빛해변

환경 정비 기간제근로자 모집

광양시는 해비치로 달빛해변의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무기간은 6월 13일부터 10월 25일까지이며, 근로자는 매주 토·일요일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해비치로 달빛해변 내 환경 정비와 공용시설 유지관리로, 쓰레기 수거와 청소, 낙엽·부유물 제거, 시설물 점검 등을 수행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시민으로, 차량 소유 및 운전이 가능해야 한다. 유사 행사나 축제 관리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접수 기간은 6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광양시 관광과(061-797-2731)로 유선 연락 후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적격 여부 심사 후 접수 마감일까지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모집 인원 총인 시 공고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서류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 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 ‘막히기 전에 미리 점검’ 장마철 시민안전 총력

자연재난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강화 실무회의

순천시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여름철 집중피해 예방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2026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하수도시설 관리강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빗물받이 청소와 우수관(빗물을 흘려보내는 관) 점검을 담당하는 현장대응반과 집중호우 시 긴급 복구를 맡는 응급복구반,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사 등 13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빗물받이·우수관 등 하수도시설 관리 강화 방안과 침수 취약지역 집중 점검 계획, 밀폐공간

(맨홀 등 산소가 부족해 질식 위험이 있는 밀폐된 공간) 질식사고 예방 및 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 논의했으며, 회의 후에는 현장 합동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재난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상 특보 발령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와 장비 점검도 병행했다.

또한 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자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사고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폭염 속 작업자 건강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순천시는 과거 침수 발생 지역과 공사장·공원 주변 하수도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시민들이 집중호우에도 안전하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하수도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빗물받이 막힘·우수관 불량 등 하수도 관련 불편사항은 순천시 하수도과(061-749-6514)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빗물받이 하나의 관리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침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보성,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 사전 교육 실시

인권 보호·근로기준 준수 등 고용주의무 안내

보성군은 지난달 28일 보성문화예술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심화되는 농업 인력난에 대응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신청한 농가와 관계 공무원 등 3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고용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 및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임금 지급 및 근로조건 준수 사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절차와 고용 관리 요령 등을 안내했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근로환경 조성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농가 생산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를 강조했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는 계절근로자 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인권증진위원회 문길주 부위원장이 강사로 나서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며 인

권 친화적 고용 문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기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현재 4개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기반을 확대로 하고 있으며, 원활한 인력 수급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하반기부터 전담 조직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74개 농가에 2,06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됐으며, 하반기에는 347개 농가에 1,266명을 배정할 예정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소규모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시행

4·5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상, 총 1억 600만 원 지원

광양시는 2026년도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대기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온도 등 운영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전송하는 장치다. 2022년 5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올해 12월 말까지 해당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에 광양시는 의무 설치 대상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

기 위해 총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4·5종 사업장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환경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시는 올해를 끝으로 지원사업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대상 사업장의 신청 누락이 없도록 사업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며 “대상 사업장은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2020년부터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지원사업을 통해 총 173개 사업장에 약 88억 원을 지원하며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조순익 기자

보성, 하절기 종합 방역소독 체계 가동

1009개소 집중 관리...감염병 매개 해충 차단

보성군은 여름철 위생 해충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군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하절기 종합 방역소독 체계’를 가동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모기, 날파리 등 매개 해충의 부화과 활동이 빨라짐에 따라, 보성군은 관내 방역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 활동을 전개해 감염병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군은 본격적인 방역 활동에 앞서 지난 26일 방역소독 요원과 관계 공무원 등 35명을 대상으로 ‘방역소독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방역 장비 사용법과 악취 취급 요령, 안전 수칙, 현장 대응 방법 등으로 진행됐으며, 현장 대응 역량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오는 10월 9일까지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대상 지역은 밀집 주거지역, 하수구, 공원, 물웅덩이 등 모기와 해충이 서식하기 쉬운 방역 취약지 1009개소이다.

특히, 군은 과거 연기와 냄새로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연막소독 대신 친환경 연무 소독을 전면 시행한다. 연무 소독은 약제를 미세 입자로 분사해 방역 효과가 높으면서도 연기와 냄새가 거의 없고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친환경 방역 방식이다.

김학성 보건소장은 “철저한 사전 교육과 장비 점검을 통해 방역 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틈없는 방역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도 고인 물웅덩이 제거 등 집 주변 모기 서식지 없애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 사라실예술촌, 청소년 체험형 미술여행 성료

‘미술관에서 탄탄하기’ 5회 운영 큰 호응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은 5회에 걸쳐 지역 청소년 대상 체험형 미술여행 ‘미술관에서 탄탄하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광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하는 주민 참여 제안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이 프로그램은 학교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사업으로, 지역 예술단체, 미술관, 전시관 등 광양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 기관과 긴밀히 협력·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관내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적은 작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순 방문형 전시 관람을 넘어 도슨트의 해설과 함께 다양한 예술적 체험과 공연을 연계한 청소년 맞춤형 미술 탐방 공간을 아닌 역동적인 학습과 소통의 장소로 인식하는 뜻깊은 경험

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참여자는 포스코 미술관 광양, 전남도립미술관, 광양예술창고 등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 공간을 탐방하며 지역의 문화 공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였고, 지역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지역 예술가와의 미술관 탐방은 전시에 대한 심미적 태도와 상상력, 창의적 비판력을 기르는 기회가 됐다.

전문 도슨트의 해설을 통해 미술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나만의 전시 티켓 만들기’ 체험으로 참가자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개성을 발휘하도록 이끌기도 했다. 더불어 광양시립국악단의 관객 참여형 국악 공연도 함께 진행되어 방문객 모두가 지역 전통예술과 적극적으로 교감하며 뜻깊은 시간을 마무리 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곡성, 폭염 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

곡성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관내 읍·면 농작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활동은 고령농업인 등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수칙 실천을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선발하고 사전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예방요원들은 4개 조로 편성돼 마을별 순회 활동을 진행하며, 농업현장을 방문해 폭염 취약시간대 농작업 자제,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등 온열질환 예방 행동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차광모와 진드기피피제 등 예방물품을 배부하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해 여름철 농작업 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찾아가는 예방활동과 농작업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